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 페테르 파울 루벤스 & 얀 브뤼겔 2세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41-42)

[제1독서] 창세 18,1-10

[화답송] 시편 15(14),2-3 7.3 ㄴㄷ-4 ㄱㄴ.5
(◎ 1 7)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콜로 1,24-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루카 10,38-42

[성가 안내]

- 입당성가: [57]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
-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성체성가: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 파견성가: [436] 주 날개 밑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때에 ³⁸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³⁹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⁴⁰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⁴¹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⁴²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Jesus entered a village
 where a woman whose name was Martha welcomed him.
 She had a sister named Mary
 who sat beside the Lord at his feet listening to him speak.
 Martha, burdened with much serving, came to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by myself to do the serving?
 Tell her to help me.”
 The Lord said to her in reply,
 “Martha, Martha, you are anxious and worried about many things.
 There is need of only one thing.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and it will not be taken from her.”

† 묵상

우리는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에 익숙하기에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마르타가 꾸중을 들을까?’ 생각합니다. 마르타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앉아서 놀기만 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 흐름을 통하여 등장인물 중 누가 옳은지를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가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시며,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타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맞아들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타입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주님을 초대해 놓고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온갖 시중드는 일에 ‘분주’합니다. 분주하다는 표현은 마르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에 반하여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1독서의 아브라함도 마르타처럼 주님을 맞아들인 뒤 주님과 그분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타와 달리 아브라함은 주님 곁에 머물며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공손히 답합니다. 제1독서에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은 천막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사라였습니다.

성경의 관심에서 벗어나 개인적 관점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가 정말 잘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의문으로 복음의 초점을 흐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개미 마르타와 베짖이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복음과 성화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 10,42)

더블린 아일랜드 국립미술관에 가면 자그마한 크기의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가 걸려 있다.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출신의 두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와 안 브뤼겔 2세(Jan Bruegel the Younger, 1601-1678)는 멀리 푸른 풍경이 펼쳐진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배경으로 한 풍속화처럼 루카복음 10장 38-42절의 내용을 충실히 화폭에 담았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 페테르 파울 루벤스 & 안 브뤼겔 2세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38-42)

마르타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는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편하게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림 속 오른쪽에서 마리아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보다 낮은 곳에 앉아 겸손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말씀에 담은 성경이 들려 있고, 등 뒤의 탁자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와 그녀의 발치에 놓인 바구니 안에는 포도가 풍성하다. 성경에는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평화와 축복을, 그리고 알알이 맺힌 열매와 뺨어 나가는 넝쿨 등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그러나 포도의 가장 큰 상징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포도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포도는 특별한 의미의 과일임이 틀림없다.

왼쪽에 있는 마르타는 선 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앞치마를 두르고 옷소매를 걷어 올린 그녀의 모습은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금방 나온 모습이다. 그녀는 투덜대며 예수님께 일하지 않는 동생을 타일러 달라고 손짓과 몸짓과 눈짓으로 부탁하고 있다. 마르타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유다 전통에 따르면 여자들은 라삐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마리아의 의무는 부엌에서 마르타의 일을 돕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를 바라보고 마리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신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루카 10,41-4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마르타는 봉사를 택했고 마리아는 기도를 택했다. 마르타는 훌륭한 몫을 택했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마르타가 조급해하고 염려하는 마음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반면 마르타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우선 배려하며 일상적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그녀 곁에 충성심을 상징하는 개가 있는 것처럼 그녀는 매우 충실하게 공적 활동을 하는 것에 익숙한 여자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가 하느님 나라를 잊어버릴 만큼 많은 일에 깊이 빠지지 않길 바라시는 마음이셨을 것이다.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회의 수도자들에게 말했다. ‘기도하고 일하라.’ (Ora et labora) 경험으로 보면 기도하고 일을 해야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다. 일하고 기도하기란 참 힘들다. 일만 하다 보면 기도는 뒷전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했는지, 기도와 일을 병행하다보면 쉽게 깨닫게 된다. “주님, 저는 많은 일을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16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1, 2019

Putting Jesus First



<오마리아 그림-바오로말 콘텐츠>

Jesus went to Martha and Mary's house for dinner one day and while Martha got the food ready, her sister Mary just sat near Jesus to listen to Him. Martha was upset because she had so much work to do and Mary wasn't helping at all. It doesn't sound quite fair, does it?

But Jesus told Martha that there was only one thing that was important, and that Mary had chosen it. Mary had chosen to be with Him and listen to Him. Martha was concerned about all the details-making good food and setting things out nicely, but she wasn't thinking about Jesus.

Jesus was not saying that cooking or working in the house is bad. He was only showing Martha and Mary that we need to put **God first** in everything.

Here are a couple of ways you can keep God first:

1. Always make sure that things like going to Mass and saying your prayers are more important to you than things that are fun.
2. Whenever you do something, say a prayer first. Offer your game or work or whatever you are doing for the glory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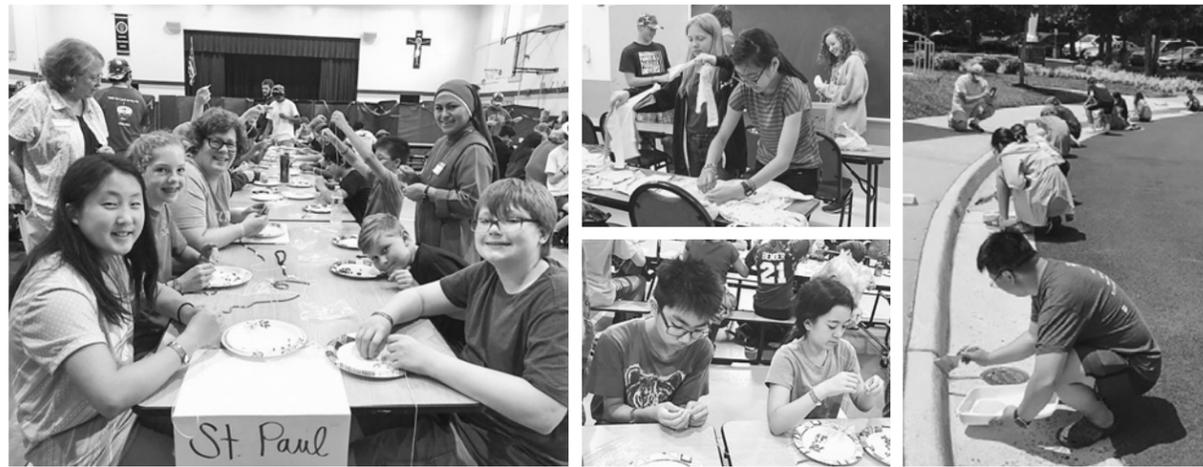
<<https://www.thekidsbulletin.com>>

CCD

~ CCD ~
SUMMER CAMP

8/2(Fri) - 8/4(Sun)
Pine Creek Retreat Center

- **Who:** Rising 4th - Rising 8th Graders
- **Camp Registration Services:** July 7-July 28(Sundays), from 8:45am-1pm at the Parish Hall
- **Registration Fee:** \$120/camper
- **Sibling Discount:** \$100/camper for two or more campers from the same family
- **Questions?** contact *Mr. Taehyun Lee*, at (703) 819-5815



CCD · News

SERVE 2019 July 7-10, 2019



From July 7 to July 10, more than 100 people(middle school campers, high school helpers and adult volunteers) gathered at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in Fairfax for the week of Sacraments, Service and Sacrifices.

With theme of "PANIM", young campers spent their time for seeking God's presence thru various service projects and spiritual activities. I want to thank to our campers, parents, parish staffs for the support. Additionally, it was a blessing to work with Mr. Jeffrey Choi and Mr. Shawn Boyle.

Last but not least, very special thanks to Fr. Kang for providing the parish tour and special treats for the visitors.

- *Yunchong Boyle(Clare)*, CCD Asst.principal



JEFFREY CHOI
Adult Crew Leader

+ 평화를 빕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본당의 CCD 중학생들과 함께 Serve 2019 캠프에 봉사자로 참가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약한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시어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하신 것처럼, 육체적·정신적으로 한창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Serve 2019 캠프에 부르시어 당신께서 늘 함께하심을 거룩한 성사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용기를 주심에, 작고 어린 아이들의 손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의 노숙자, 미혼모, 노인들에게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심에 감사했습니다. 이 봉사과 사랑의 기억이 참가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웃들에게 영원히 머물도록 기도드립니다.



DANIEL KIM
6th grade

My time at work camp this year was very nice. I helped others by mulching, and visiting others at Fairfax Rehabilitation Center. I helped in a food drive by putting out flyers on doors and collecting food. I really learned a lot about helping others, and I also learned a lot about Catholicism. I spent a lot of time with the Father and had discussions with a Sister. I think that Serve 2019 really helped me deepen my understanding about Catholicism.



NURI HAN
7th grade

I had a lot of fun during Serve. This camp was a great opportunity to meet other people from different parishes. It was interesting to visit the other churches in our diocese and learn about them. Even though the camp lasted all day, I barely noticed time passing by. The volunteer work kept me busy. We passed out flyers, made meal packs, and visited nursing homes. During my time at the camp, I formed better habits like waking up early and praying more often. I wish I could go back next year.



MALCOLM BOYLE
8th grade

This year's SERVE was a great experience. Daily Mass brought all of us closer to God. I enjoyed evening group prayer with small discussions at the end of each day. I participated in many different service projects and helping others made me feel good. In conclusion, SERVE 2019 was a big success and I am happy that I was a part of it. I encourage any rising 6th through 9th grader next year to go.



JEE SUN LEE
High School Helper

Three days were not enough to take gigantic steps toward God. However, having to be in mass, praying the rosary, and reading and thinking deeply about the Bible surely allowed me to form a stronger bond with God. When I was reading and discussing sections in the Bible, I was able to touch the messages that he had sent through followers and engraved the words in my heart. Wanting to become closer to God, I have said the prayers thoughtfully word by word. Then the appreciation followed, realizing that God wants me to know Him.

Having to volunteer in such a wonderful event was honorable. I was not only able to participate in different events but was also able to get closer to God and form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Him. This camp was a great experience to contemplate my faith and discover more about myself as a person.

파티마 세계 사도직 일일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One Day Pilgrimage to the National Blue Army Shrine of Our Lady of Fatima

파티마 세계 사도직이 주최하는 일일 성지순례가 지난 7월 13일 (토) 뉴저지 파티마 본부에서 열렸다. 본당에서는 파티마 회원과 교우 등 45명의 순례단이 참가했다. 순례단은 오전 5시 15분에 성당에서 출발해 버스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기도와 삼종기도, 묵주기도(환희의 신비와 빛의 신비)를 바치고 파티마에 관한 영상도 시청하며 순례를 위한 마음을 준비했다. 순례단은 오전 10시에 순례성지인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본부가 위치한 뉴저지의 Asbury 에 도착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 선선한 바람을 즐기며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준비해온 점심을 먹은 후, 본 행사가 열리는 야외 성당 근처에서 자유 시간 및 묵상 시간을 가졌다. 이 날은 파티마 성모님의 세 번째 발현 10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 때문인지 타주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로 성전 주변이 붐볐으며, 많은 사람들이 성당 주변 풀밭에 자리를 잡았다.

오후 12시에 순례 성모님 행렬과 묵주기도가 시작됐고, 그 후 시카고에서 오신 Joshua Caswell 신부님의 특별 강론이 있었다. 신부님은 시카고에서 있었던 Broken Mary 행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성모님은 우리들처럼 'Broken' 된 사람들을 위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은 죄와 부족함으로 부끄러워 아담과 이브처럼 숨고 싶을 때, 더욱더 하느님께 우리를 드러내며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강조하셨다.

그 후 Milwaukee에서 오신 Joseph Perry 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셨고, 강론에서 “우리의 중재자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이며, 우리가 성모님을 초대함은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두 초대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우리가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하면, 성모님은 모성적 마음으로 늘 우리를

도와 주신다”고 하셨다. 미사 후, 성체 현시와 성체 현양식을 가졌고, 끝순서로 다같이 ‘파티마 안녕’을 부르면서 성모님께 하얀색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는 가슴 뭉클한 시간을 가졌다.



성지를 떠나기 전에 오솔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녁기도와 삼종기도를 바치고, 김만식 재권요셉(전 파티마 회장) 형제의 강론 내용 설명과 묵상 시간을 가졌다. 중간에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친교 시간도 가졌다. 버지니아로 다시 출발하면서 묵주기도(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를 바치며 성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봉헌했다. 파티마 성모님의 세 번째 발현 10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에 성모님이 예수님께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임을 되새겼다. 이번 성지순례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은총의 성지순례였다.

<이종석 루카>

1 2019 - 2020년도 사목 보고회

- 일시: 7월 28일(일) 오후 1시, 성당(오후 12시 점심식사)
- 참석 대상: 회장단, 사도회 임원, 재정위원, 구역봉사자 (소공동체), 단체장(신심 및 활동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 CYO) 교감, 하상 문화원 원장, 하상 방송 코디네이터, 하상 성인학교 교장, 하상 한국학교 교장/교감
- 문의: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2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7월 21일(일) 오전 11:30(B-3,4)

3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7월 21일(일) 오전 11:30(A-1,2,3,4)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7월 21일(일) 오전 11:40(하상관 #5)

5 K of C 월례회의 및 임원 임명식

- 일시: 7월 21일(일) 오후 1시, 성당

6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세미나 (교육부 주관)

- 일시: 7월 28일(일) 오전 11:30(A-1,2)
- 강사: 정문기 윌리엄(DK Health VA)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7 복사단 모임

- 일시: 7월 28일(일) 오후 1시(B-1,2)

8 요한회 월례회의

- 요한회 월례회의가 7월 28일(일)에는 없습니다.

9 CYO(고등부) 여름 캠프 신청

- 신청: 미사 후 (8시, 10시, 11:40), 친교실
- 등록비: \$120 / 2명부터 \$80
- 일정: 7월 25일(목) - 7월 28일(일)
- 대상: 9학년 - 12학년
- 장소: Prince William County Park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10 CCD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3학년 - 7학년
- 일정: 8월 2일(금) - 8월 4일(일)
- 장소: Pine Creek Retreat Centre, Gore, VA
- 신청: 7월 28일까지,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오전 8:45 - 오후 1시)
- 문의: 이태현 디렉터 (703)819-5815

11 2019 - 2020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

- 학사 일정: 2019년 9월 7일 - 2020년 5월 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시)
- 입학 대상: 유치부(K) - 12학년
- 모집 인원: 선착순 180명
- 학비: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등록: 하상관 교무실 (7월 26일까지, 오전 9:30 - 오후 3:30) 하상관(10시 미사 후, 8월 4일 - 8월 25일까지)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교무실 (703)968-3070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12 2019년 이냐시오 영성 8박 9일 침묵 피정 (동중부 CLC 개최)

- 일정: 8월 9일(금) - 8월 17일(토), 선착순 30명
- 장소: 로올라 피정의 집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64
- 신청 및 문의: 임윤호 요한 (703)201-9506 yoonho_lim@yahoo.com

13 워싱턴 가르멜 재속회 침묵 영성 피정

- 일정: 8월 10일 - 8월 11일(1박 2일)
- 장소: Washington Retreat House 4000 Harewood Road N.E. Washington, D.C.
- 강사: Fr. Steven Payne, OCD, 민병섭 바오로 신부님
- 문의: 박은미 마리스텔라 (703)955-6633 박성곤 안드레아 (804)241-7499

14 주임 신부님과 함께하는 과달루페 성지 순례 (M.E 주관)

- 일시: 10월 24일(목) - 27일(일), 3박 4일
- 경비: \$1,150 (7월 21일까지 / 예약금 \$150 선불)
- 방문지: 과달루페 성지, 바실리카 성당, 산타 도밍고 성당, 부에볼라 시, 멕시코 시티
- 신청: 7월 21일까지 친교실 (미사 후)
- 문의: 김 요한비안네 (703)830-5473



www.masstimes.org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21일(일)	연중 제16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K of C 임명식(오후 1시, 성당)
22일(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23일(화)	연중 제16주간	하상 한국학교,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바오로 기획부 모임(오후 8시)
24일(수)	연중 제16주간	하상 한국학교,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재정 위원회(오후 8시)
25일(목)	성 야고보 사도 축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 CYO Summer Camp
26일(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하상 한국학교 종강, 평일미사(오후 7:30), 올드레아(오후 8시), 바오로 자매모임(오후 8시)
27일(토)	연중 제16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7월 28일(일)	연중 제17주일	사목 보고회(오후 1시, 성당),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바오로 모임(오후 1시), 요한회 모임 없음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16주간: 시편 99-106, 2 코린 5**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25일(목) 오후 5:00-6:00
7월 26일(금) 저녁 8:00-9:00
7월 28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13):** 순례자의 도시들. '프로미스타'에서 '카리온 데 로스 콘데스'까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7월 14일(연중 제15주일)

주일헌금 \$7,903.00
교무금 \$7,9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5,845.00
특별헌금 \$300.00
2차헌금 \$7,909.00
합계 \$29,86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봉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벌바라),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오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후(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지(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나),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벨),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오),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헬(마카벨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진(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천),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Commercial 김준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